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

총평

2025학년도 9월 모의 평가

국어 총평

- 2024. 9. 4. 상상국어평가연구소

01 출제 경향 및 난이도

올해 9월 모의 평가는 최근 치러진 평가원 시험 중에서 손꼽을 만큼 쉬웠다. 독서와 문학 등 공통 과목이 모두 평이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선택 과목도 일부 문항이 까다로웠을 뿐, 대체로 무난한 난도를 보였다. 독서의 경우 지문 길이는 지난 6모에 비해 사회, 기술은 다소 늘었지만, 예술 복합 지문은 짧아졌다. 깊이 있는 추론을 요하는 문항이 거의 없었고, 정보의 비교, 사실 관계 확인 등 꼼꼼한 독해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문학 또한 작품 자체의 난도가 낮은 편이었다. 문학 개념어를 제시한 31번을 제외하면, <보기> 내용도 작중 상황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친절하게 제공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으로 2023학년도 9모와 2022학년도 수능에 각각 출제된 바 있는 작가 백석과 윤홍길의 작품이 또다시 등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기출 작가를 대상으로 출제하는 일은 삼간다는 목계를 깬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작과 연애는 모두 대체로 평이하되, 일부 문항의 난도를 높여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본적 패턴을 유지했다. 1등급 컷은 화작 96~98, 연애 95~96점으로, 어려웠던 지난 6모에 비해 10점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02 영역별 분석

■ 독서

독서론은 기존 출제 경향, 난도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고, 시각 자료의 유형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 평이한 내용을 담았다. 3번 <보기> 문항은 지난 6모처럼 줄글로 된 독서 일지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분량이 절반가량 대폭 줄어 부담이 적었다. 사회는 수특 124쪽을 연계했고, 해당 내용을 1~3문단에 걸쳐 반영하여 체감 연계율이 높았을 것이다. 지문의 구조도 비교적 단순하며, 거래와 광고 행위에 관한 규제라는 친숙한 제재를 다뤘다. 4번, 5번 문항의 경우 지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변주만 주어 쉬웠다. 6번 <보기> 문항 또한 지문의 핵심 개념을 토대로 선지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했다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어 추론보다는 사실 확인 유형에 가까웠다. 다만 5번 문항의 ④번, 6번 문항의 ②번 선지에 실수를 유발할 만한 함정이 있었다. 기술은 수특 218쪽을 연계했으며, 특정 원리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대신 블록체인 기술이 지닌 다양한 특성들을 나열한 정도라서 체감 난도는 높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정보량이 많은 편인데도, 지문과 문항이 앞뒤 페이지로 정확히 분리되어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 8번은 변형된 서술 방식 문항으로, 내용 일치를 묻는 선지도 함께 섞여 있어 특이했다. 10번 문항은 원리적 측면에서 해당 부분의 이유를 추론해야 한다는 점에서, 11번 <보기> 문항은 지문과 <보기>, 선지의 정보 관계가 중층적으로 얹혀 있어 그나마 까다로웠다. 복합 지문의 경우 논리학을 다룬 지난 6모와 달리 예술이 출제되었고, 수완 240쪽을 연계했다. (가)에서 바쟁의 사실주의 영화 이론을, (나)에서 이와 대비되는 정신분석학의 입장을 다뤘다. 특히 (가) 지문이 EBS와 상당 부분 일치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도는 낮았을 것이다. 문항의 경우 지난 6모와 마찬가지로 어휘를 제외한 내용 관련 문항을 5개 배치하여 부담을 주고자 했지만, 지문의 내용도 비교적 명확했고, 문항에서 복잡한 추론도 요구되지 않아서 무난한 세트라 할 수 있다. 12번 문항은 한동안 출제가 뜸했던 유형이라는 점, '㉠의 이유'를 추론하는 문항이 2개 출제된 점이 눈에 띈다.

- **문학** 문학도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 EBS 연계 작품으로는 「북방에서-정현웅에게」, 「날개 또는 수갑」, 「호아곡」이, 비연계 작품으로는 「광한루기」,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생가」, 「이문원노종기」와 정철의 시조 2편이 출제되어 37.5%의 연계율을 보였다. 그러나 「광한루기」는 연계 작품인 「춘향전」의 이본이라는 점, 「날개 또는 수갑」은 출제된 부분이 전부 EBS 교재에 수록된 부분에서 발췌되어 수험생들의 체감 연계율은 그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백석과 정철 등 최근 기출에 등장했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다시 출제되었다는 점. 한 세트 안에 동일 작가의 작품이 (가)와 (나) 형식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작품의 특정 대목을 기호나 약물로 처리하여 <보기>와 연결하여 풀이하는 21번 문항의 형식이 독특했다. 선지 간 정보 간섭(서글픔/슬픔, 빗대어 표현/의인화)도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화자와 중심 소재와의 관련성을 묻는 25번 문항, <보기>의 개념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31번 문항이 까다로운 편이었다.
- **화법과 작문** 화작은 지난 6모에 비해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화법(35~37)은 기존 유형의 문항을 약간 변주했을 뿐, 친숙한 소재와 낮은 난도의 문항으로 부담이 적었다. 화작 융합(38~42)은 학생들의 대화와 소감문이라는 전형적인 구성을 유지했다. (가)의 대화 내용과 (나)의 소감문, 문항에 제시된 ‘참여 후기’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정답을 고르도록 한 40번 문항이 어려웠다. 작문(43~45)의 45번 자료 활용 문항은 까다로운 유형이기는 하나, 이전 기출에 비해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 **언어와 매체** 언어는 지난 수능과 6모에 비해 평이했고 새로운 유형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풀이 과정에서 변수가 되는 요인이 없었다. 다만 35번의 경우 품사와 문장 성분의 분석을 모두 다루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37번은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을 혼란한 유형이며, 38번은 중세 국어의 높임 표현, 39번은 겹문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부정 표현, 시간 표현 등의 문법 요소를 종합적 묻고 있어 이번 9모에서는 기본 문법 지식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언어 성적을 좌우했다고 볼 수 있다. 매체는 ‘4+2’의 틀을 깨고 2023학년도 9모 이후 모처럼 ‘3+3’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두 세트 모두 겉보기에는 분량이 많은 듯하나 가벼운 정보를 취급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문항의 출제 스타일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뉴스레터’라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점, 언어 통합 문항에서 문형에 변화를 준 점이 눈에 띈다.

03 상상 모의고사와 9모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지난 6모에 비해 상당히 쉽게 출제되었다. 사실 6모를 어렵게, 9모를 쉽게 출제하는 것은 과거 평가원 시험의 일반적 패턴이었다. 최근에는 두 시험 간의 난도 차가 줄었던 것뿐이다. 그 점을 감안해도 이번 9모는 독서를 비롯한 전 영역에 고난도 문항이 거의 없어 등급컷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엄밀히 말해 수능의 난도는 당해 연도에 실시된 6모와 9모의 사이에서 진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달리 말해 올해 수능은 6모보다 쉬울지는 몰라도 9모보다 확실히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9모의 난도가 과하게 낮았을 뿐이므로 9모의 결과에 마음을 놓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뜻이다. 다만 지문 제작과 작품 선정, 선지 구성의 기본적 스타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상상 모의고사는 평가원의 최근 기출의 경향을 잘 빠르게 반영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 능력 신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 또한 덜어 주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